전국이 가마솥… '폭염특보' 발효

일부 낮 최고 기온 37도까지 솟아
이번 더위 다음 달까지 이어질 듯
기상청 "낮 야외 활동 자제 필요"

15일 오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겼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3도 이상을 기록하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7도까지 치솟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세종·울산·부산·대구·광주·경남(고성 통영 제외)·경북·전남(화순 나주 함평 순천 광양 보성 구례 곡성 담양)·충북(제천 단양 충주 영동 옥천 괴산 보은 청주)·충남(부여 공주)·강원도(삼척평지 동해평지 강릉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속초평지 원주)·경기(여주 안성 평택)·전북(순창 남원 전주 정읍 익산 임실 무주 완주)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제주도(동부 북부 서부)·경남(고성)·전남(무안 장흥 진도 영광 영암 완도 해남 강진 여수 고흥 장성)·충북(증평 음성 진천)·충남(당진 서천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산 논산 아산 천안)·강원도(북부산지 중부산지 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영월 태백)·경기(화성 군포 성남 가평 광명 양평 광주 이천 용인 하남 의왕 오산 남양주 구리 안양 수원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동두천 부천 과천)·전북(진안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장수)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뜻한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지속되는 '가마솥 더위'는 앞으로 최소 열흘 최대 20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앞서 "현재 폭염 현상은 여름철 우리나라 더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고기압 뿐만 아니라 티벳 고기압이라 불리는 대륙 열적 고기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기압계 형태 또한 하층부터 상층까지 더위를 유발하는 고기압이 매우 견고하고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어 고압대가 쉽게 흐뜨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기압 형태를 보인 2012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약 20일 가량 폭염 현상이 지속했다"며 "23일 이후까지 더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와 관련, "열사병·탈진·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낮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가족 및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무더위 기승
온열질환자 잇따라 발생

광주·전남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

14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2분께 여수시 문수동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모(18)군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 군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서모(50) 씨가 높아진 체열을 땀으로 배출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날 오후 12시20분께에는 고흥군 과역면의 자택에 머물던 송모(74) 씨가 땀을 많이 흘리고 손발이 떨리는 열경련 증상이 나타나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2일 오후 4시38분께 영암군 도포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멜론을 수확하던 태국 국적의 A(29·여) 씨가 열탈진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앞서 11일 오후 4시23분께 영암군 시종면에서도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작업자 B(26·여) 씨가발열·울렁거림 등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광주에서만 12명, 전남에서는 총 11명의 온열질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춘정 기자

연대집회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함께 가자 갑질 격파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갑질 총수 퇴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동물약품도매업소 5곳 관리약사 부재 적발

전남도는 최근 동물약품도매업소 25개소를 불시 점검해 위반업소 5개를 행정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9개 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사항 무단 변경 여부와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관리 상태, 동물약품 보관 및 유통 실태,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약품 관리 실태, 유효기간 경과 약품 보관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관리약사 부재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경고)토록 조치했으며, 도에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또 판매량이 많은 동물약품 46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도 누리집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릴 방침이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정기 또는 불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양축농가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안전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 고속도로서 7중 추돌 5명 경상

14일 오후 3시56분께 광주 북구 장등동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73km 지점에서 차량 7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2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정체구간에서 멈춰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한 뒤, 1차선에 서 있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다세대주택서 80대 부부 숨진채 발견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8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다세대 주택에서 A(89)씨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가 숨져 있는 안방 등에서는 비어있는 농약병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부부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근해 보니 A씨 부부가 숨져 있었다"는 요양보호사의 진술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대병원 진료비 예탁금 횡령 의혹 수사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비 예탁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전남대병원 직원 등이 환자의 진료비 예탁금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예탁금은 환자가 치료비용을 미리 납부한 뒤 차액이 발생할 경우 돌려 받는 제도이다.

직원 등은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예탁금 차액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비 예탁금 등 횡령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고 횡령 방법과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며 "꼼꼼하게 관련 기록들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경주서 죽은 백상아리 발견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시 수렴항 인근 해상에서 백상아리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어민들의 주의가 촉구된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따르면 연안복합 어선 H호(1.99t) 선장 A(60)씨는 14일 오전 3시께 조업하기 위해 수렴항을 출항해 장어 주낙 작업을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채 감겨 올라오는 길이 143㎝, 무게 25㎏인 백상아리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 연안 해상에서 식인상어가 발견돼 어업인들과 다이버 등 레저 활동자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고함을 지르거나 작살로 찌르는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중 아내 살해 후 도주 40대 검거

인천의 한 주택 길가에서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자수의사를 밝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흉기로 이혼 소송중인 아내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A(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길가에서 B(40·여)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1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에서 긴급체포했다.